

# 이재명, 17일 당 대표 출마 선언...메시지는 “정치 개혁”

## 비명계, 반전 모색 안간힘

## 97그룹 4인방·김민석 신경전도 컷오프 후 단일화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후보 등록 첫 날인 오는 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이 상임고문이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8·28 전당대회를 둘러싼 계파 간 권력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고문 측 핵심 관계자는 14일 “오는 17일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이 고문은 차기 당 대표를 뽑는 8·28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으며, 당내에

서는 이 고문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여겨왔다. 출마 선언 메시지의 방향은 이 고문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정치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고문의 출마를 둘러싼 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만큼 당내 통합 메시지 역시 비중 있게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관계자는 “이 고문이 평소 중요하다고 밝혀 온 내용을 선언문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7일부터 이틀간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28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한다.

이 상임고문의 당 대표 선거 출마가 공식화하면 당내 경쟁도 불이 붙었다.

당 대표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도 ‘이재명계 대 비이재명계’ 대리전으로 흐르며 계파 간 신경전은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항마’로 나선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4인방과 중진 김민석 의원의 예비경선(컷오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당권 주자들 간 역학 구도도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 고문의 출마를 예상했던 비이재명계에선 ‘이재명 대세론’을 뒤집기 위한 반전 카드를 찾는 데 연일 집중하는 모양새다. 급기야 비이재명계에서는 전날부터 이 고문의 ‘사법 리스크’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판을 흔들 만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에서 여권의 프레임이기도 한 ‘방탄용 출마’마저 언급한 것이다.

비이재명계인 조승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고문의 출마를 두고 “배 위에 구멍은 그대로 낚는데 일등석 주인만 바뀌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정 당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문의)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등을 검수 완박이 완료되는 9월 10일 이전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 리스크를 계속 꺼안고 가는 건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간 비이재명계에 대한 ‘반격’을 자제하던 이재명계 인사들도 ‘사법 리스크’ 거론에는 강도 높게 반발하며 정면 대치했다.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계 장경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 ‘어그로’(도발적 행위와 상대의 공격을 유도하는 것)만으로 혁신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당 후보에 대한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 수사를 전당대회에 이용하는 건 공색한 일”이라고 말했다.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구도를 흔들기 위해 당권 도전에 나선 97그룹 의원들(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과 김민석 의원 등 다른 주

자 사이에서의 내부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로서는 본선 진출자를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29일)이 당장 1차 관문이기 때문이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 고문과 제가 동갑이고 97주자들까지 포함해서 다 50대”라며 “이재명 대 97그룹이라는 구도는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모두 ‘이재명 당권행 저지’가 공약수인 만큼 컷오프를 전후해 몰림 단일화 움직임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97그룹의 한 주자는 통화에서 “단일화 논의는 본선이 열린다면 그때나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현재로서는 컷오프 통과가 급선무라 97그룹 내부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광주 전략적 선택이 민주당 미래로 이끌수 있어”

### 광주 찾은 민주당 대표 도전 박용진 의원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용진(사진) 의원이 14일 광주를 찾아 “짚잘짜(짚지만 잘 싸워)란 미명 아래 연전연패한 장수가 또다시 민주당에 패배의 기운을 싣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당 대표 도전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방탄용 출마와 사법 리스크란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며 “정치 보복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 정권에 약점 잡히지 않고, 결연히 싸워나갈 수 있는 민주당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이 고문의 도전을 거듭 반대했다.

이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절망적 체념으로 드러난 민주당의 위기는 민주당의 가치와 시대 정신의 위기”라며 “어대명이라는 막대한 골목과 안방 대세론의 절망적 체념에서 벗어나 민주당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계파 없는 박용진은 이재명과 협력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계승하겠다”며 “친문과 함께 하고 친명과 협력할 수 있는 모두의 당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의 전략적 선택이 민주당,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당당한 미래, 밝은 미래로 이끌 수 있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복합쇼핑몰 등 현안을 강기정 시장과 협력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표심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 비명(비이재명)계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로서 이 고문에 맞서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국힘, 18일 광주·전남 예산정책협의회 복합쇼핑몰·반도체산업 육성 논의 기대

### 민주 텃밭 호남 첫 행선지 선택

국민의힘은 다음 주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과 예산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 협의회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현안인 복합쇼핑몰 유치와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비상 상황, 민생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다음 주 월요일(오는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에서 내건 지역 공약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첫 행선지로 잡았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현대백화점그룹의 참여 선언으로 공식화한 복합쇼핑몰 유치 문제에 대해 광주시의 입장과 계획을 듣고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첫 번째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큰 변화와 지원을 보여준 호남 지역으로 달려가 민생 대안을 모색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 지역의 고른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 광주시가 생각하는 밑그림을 국민의 힘과의 예산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17일 고위 당정협의회...코로나·긴급 경제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긴급 경제 대책을 주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17일) 코로나19와 긴급 경제 대책으로 고위 당정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위 당정협의회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데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회의다.

논의 안건은 ▲ 코로나 상황 및 대응 방안 ▲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 방안 ▲ 식약행정 혁신 방안 등 3가지로,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 식

약처가 각각 해당 안건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중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또 고위 당정협의회 주제와 관련된 부처에서 보건복지부 2차관, 식약처장, 질병관리청장,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며, 김대기 비서실장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투자자 모심

1. 자금 - 5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주식회사 오 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H. 010-3605-5000